

아이누인의 문화적 특성과 복식에 관한 연구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 and Folk Costume of AINU

Kang, Soonch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2001. 10. 31 투고)

ABSTRACT

It has been since 15 century when Ainu realized themselves as a race. Their folk culture had been formed with the effect of East-northern Asia and cultural exchange with Japanese through the northern trade during 17 -18 centuries. It can be ascertained from the typical festival food and clothing, clothing style and the ornaments of Ainu people.

The basics of Ainu people are composed of an unfolding clothes which men and women had worn in one-piece style even though they had lived in the northernmost cold climate. Atousi is their typical clothing which had been made of the grass fiber. Ainu people had imported the old cotton clothes from the trading with the mainland roughly in the late E-do (late 18 century).

Ainu's clothing is divided broadly into Aiusi and Moreu pattern. Ainu people had decorated their back, shoulder, collar, burial clothes, waist and hem by changing and mixing them. These are the expression of their desire to prevent themselves from the wicked plot or the devil. There is no similar Ainu patterns or skill in Kimono, while it is known to be rather related to the area of Amur River, Sakhalin, and the distant Mongolia. Therefore, the traditional pattern of Ainu should be the continental conception which had been skilfully shaped through the trading with the north adding the senses of Ainu people.

Key words : Ainu(아이누), atousi(아토우시), aiusi(아이우시 : 括弧文), moreu(모레우 : 渦卷文),
E-do(江戸 : 에도시대), Amur River(흑룡강)

* 이 논문은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 언

오늘날 아이누어라고 하면, 오랜 동안 日本 역사에서 소외된 채 北海道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들을 아이누라 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2세기 즈음 에조라고 불리던 대상은 북해도를 중심으로 거주한 擦文文化人을 지칭하며 에조는 곧 후일의 아이누'라는 주장과, 북해도의 고고학 편년상에서도 아이누문화를 15세기~19세기초까지로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이누'가 하나의 민족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빨라도 14, 5세기를 상회하지는 않는 것 같다.<표 1>

<표 1> 연대대조표

年	北 海 道	日 本 本 土
前300	縄文時代 (採集・狩獵時代)	彌生時代 (稻作文化의 展開)
300	縄文時代	古墳時代 (政治勢力의 伸張)
600		奈良・平安時代 (律令國家의 展開)
800	擦文時代 (아이누文化의 形成)	鎌倉・室町時代 (海外貿易의 發展)
1,000		江戶時代 (幕藩體制의 整備)
1,200	彌勒大明神繪 (1356)	明治時代 (國民國家의 形成)
1,300	近世	
1,400	코사마인	
1,500	戰爭 (1457) (山丹交易의 盛行)	
1,600	이누의 時代	
1,700	샤코샤인 戰爭 (1669)	
1,800	구나시라・에나시戰 (1789)	
1,900	同化政策에 의한 傳統文化의 破壞	
2,000	アイヌ新法の 成立 (1987)	

현재 아이누문화의 주인공 아이누인이 북해도의 원주민이었다는 데에는 일본 학자들 간에 異見이 없으나, 본토 일본인들과의 種族的 聯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아이누에 관련한 古代의 호칭 문제와 아이누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고찰하여, '아이누는 古몽골로이드인 原日本人과는 조상을 함께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²⁾ 이는 形質人類學者인 植原 和郎 教授의 '古몽골로이드인인 縄文人=原日本人=아이누'라는 주장³⁾과도 脈絡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17~18세기 아이누인의 자취는, 북해도를 중심으로 宗谷海峽을 지나 樺太, 南千島에까지 이르고 있고, 아이누문화의 많은 부분이 북방 수렵문화와 공통하는 것이 많아, 결국 아이누의 원류에 관련된 문제와 근세 아이누문화의 성립이나 특징에 관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일본 속에서도 오랜 동안 異民族의 異文化로 취급되어 왔던 아이누문화의 형성배경과 특징, 아이누인의 복식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이누문화의 특성과 결코 북방적이지 않은 아이누인의 원피스 스타일의 前開型 衣服 및, 의복에 施繡된 그들 특유의 북방적 문양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는 곧 복식을 매개로 한 아이누인의 원류를 검증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현지 체류에 의한 문헌연구, 박물관 답사, 아이누의 전통문양 전수에 진력하고 있는 計良智子⁴⁾씨와의 인터뷰 등을 행하였다.

II. 아이누文化

1. 아이누文化의 형성

1) 北海道 고고학 上에서의 아이누文化

북해도는 續繩文時代를 기점으로 하여 本州와 다른 문화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고 보나, 그 차이가 현저해지는 것은 대략 8세기 擦文文化時代에 이르러서부터이다. 즉 연대적으로 8세기에서 13세기경에 상당하는 이 擦文文化는 후일 아이누文化의 원류라고 할 정도로 아이누文化 성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Pre-아이누文化 내지 초기 아이누문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 여기에는 擦文文化의 요소가 아이누문화와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고고학적 사실과 함께, 이른바 12세기 즈음 등장하는 에조(蝦夷; エゾ)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대상을 지역적,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해도의 擦文文化人을 의미하는 것이니, 북해도의 擦文文化는 곧 '蝦夷(에조)文化'이고, 에조는 다시 아이누를 지칭한다는 데에서, 결국 擦文文化는 곧 Pre-아이누文化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이즈음 북해도에는 本州와는 이질적이고도 독특한 문화가 존재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擦文時代와 거의 동일한 시기, 北海道의 北半 및 오호츠크해안 지역에는 擦文文化人과는 다른 東北아시아적 문화의 색채를 가진 외래민족에 의하여, 오호츠크문화가 開花되고 있었다. 이 문화의 根源地는 大陸의 北東部이며, 이들은 高度의 金屬器를 소유하고 뛰어난 어로와 수렵기술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 외래인들은 5세기경 사할린으로부터 宗谷海峽을 넘어 北海道의 북부 오호츠크沿岸으로 이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이들은 북유럽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바이킹과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기 때문에 아시아바이킹이라고도 불리며, 오호

츠크인 혹은 모요로인이라고도 한다.⁸⁾ 山口 敏은 이들에 대한 頭蓋 계측치, 頭形, 얼굴의 종횡의 비나 골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들은 북해도 아이누와는 다른 현재의 북방 몽골로이드 집단의 범주에 있고, 전형적인 북방집단 곧 시베리아나 極東의 한냉지에 사는 사람들의 형태와 공통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여, 오호츠크문화의 담당자는 동북아시아의 인류 집단, 특히 흑룡강 하류 지역의 나나이, 위르치, 몽골, 니부흐 등의 민족집단에 가깝다는 결과를 내었다.⁹⁾ 이는 결국 당시 오호츠크문화가 있었던 북해도의 동북부에 북방 몽골로이드의 형질을 가진 집단이 명확히 있었다는 주장이다.

10세기 즈음에 이르면 오호츠크문화에는 토기나 수혈주거에 擦文文化와 오호츠크문화의 특징이 합쳐진 양상이 등장하면서 擦文文化의 요소가 확대되는데, 이는 오호츠크문화의 주인공들과 擦文文化인들과의 문화 접촉 및 교류가 깊어지면서 종래는 오호츠크문화가 擦文文化로 융합·동화되어 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단 사할린에는 12, 13세기까지 오호츠크문화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⁰⁾

이러한 북해도문화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근세아이누문화의 시간적 설정은 本州의 室町~江戸時代에 상당하는 15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로서, 아이누문화의 계보나 그 형성과정을 생각할 때, 15세기 아이누文化에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운 擦文文化가 아이누文化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異論은 없다. 이는 13세기 擦文文化가 끝날 즈음, 北海道에는 대규모적인 민족 이동의 증거가 없었다는 사실도 아이누문화를 담당했던 원조와 擦文文化의 담당자를 동일시 하는 데에 一理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¹¹⁾

다만 아이누문화가 북해도 전역과 오호츠크문화의 거점이었던 사할린남부나 千島列島에 까지 확대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아이누文化

는 擦文文化 뿐만 아니라 北 오호츠크문화권으로부터도 다양한 문화전통을 계속하여 받고, 또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꽤 복잡하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쪽이 옳을 것이다.¹²⁾ 이는 특히 本州의 카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시기에 걸쳐 발전한 沿岸 교역에서 本州人들과의 교역을 담당했던 擦文人의 배후에는 狩獵, 漁撈에 뛰어난 技術을 가졌던 오호츠크文化인들이 있었음과,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의 이용이나 전수만이 아니라 의례나 관념 등 정신문화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 일부가 아이누문화로 전승되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활발했던 아이누문화의 북방 교역 측면에서도 오호츠크문화와의 관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擦文文化圈은 道北의 오호츠크연안을 제외한 北海道 대부분의 지역과, 本州 北端部の 일부로서 그 文化圈 대부분이 北海道에 한하고 있던 데에 반하여, 이후 전개된 아이누문화권은 北海道 전역뿐만 아니라 北은 사할린 남부, 東은 千島列島에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擦文文化·오호츠크문화에서 아이누문화로의 變容과 함께, 사할린북부를 제외한 오호츠크문화권이 드디어 아이누문화권으로 변모하면서, 과거 오호츠크문화인들이 개척해 낸 사할린과 北海道와 千島를 묶는 해상의 길을 아이누인들이 계승하였던 결과로서, 이후 전개되는 아이누문화의 북방 교역은 오호츠크문화의 커다란 유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³⁾

2) 源流와 연관한 아이누문화의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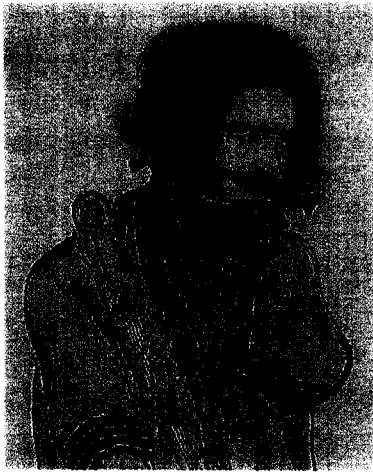
근세아이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집단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에미시, 에비수, 蝦夷, 에조 등 다양하다.¹⁴⁾ 그런데 ‘아이누’란, 아이누라고 불렀던 그들 자신의 말로는 ‘인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누’라는 단어가 민족을 지칭하게 된 데에는, 14, 5세기 즈음 북해도의 渡島半島

에 진출한 和人(본토의 일본인)들이 이들에 대해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이누’라고 답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末에서 20세기 初에 걸쳐 유럽의 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아이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이누인의 신체적 특징에 착안하여, 아이누는 일본민족과는 무관계하고, 오히려 유럽인종에 가까운 백인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¹⁵⁾ 그러나 최근 植原 和郎는 형질인류학적 측면의 연구에서, 「일본열도에는 재래집단으로서 古몽골로이드인인 縄文人이 있었으며, 縄文時代 말에서 弥生時代를 거쳐 7세기 고분시대 말경까지 북아시아계의 새로운 집단, 즉 新몽골로이드가 주로 朝鮮半島를 통하여 계속하여 들어와 이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近畿地方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본토 일본인이 되었다」라고 하여, 일본의 구석기시대 혹은 縄文時代 사람들의 形質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는 아이누와 도래집단과의 혼혈이 이루어졌던 和人과의 인종적인 연결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이누인은 한민지의 적응을 하지 않았던 古몽골로이드인인 縄文人=原日本人을 조상으로 하며 동일한 縄文人을 조상으로 하는 和人과는 시대를 소급할수록 서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형질인류학적으로 입증하였다.¹⁶⁾

physical한 인간의 문제와 문화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이루어 내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생각하면, 인간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縄文人을 조상으로 하는 아이누인을 생각해 볼 때에, 광의의 아이누문화 형성기라고 하는 것은 북해도 縄文文化 속의 先아이누期로부터 擦文文化和 오호츠크문화기인 原아이누期, 和人의 북해도 이주와 더불어 민족적인 특징을 확실히 해 나가는 아이누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先아이누期；繩文文化 속에서의 아이누
 繩文文化는, 北은 北海道에서 南은 神繩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문화이다. 繩文文化가 아이누기에 까지 남았다고 추정하는 풍속 중에는 文身, 信仰을 들 수 있다. 즉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文身の 풍습은 日本列島 전역에 미치고 있었던 바, 이러한 文身の 풍습이 결국 최후까지 근대 아이누문화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으로써, 결국 아이누인의 文身은 繩文文化的 흐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도 1)



<도 1> 입주변과 팔에 문신한 성인여성
 (출처: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

또한 일본의 고대 神道와 아이누의 神道, 즉 8세기 이전 시기의 신에 대한 의례는 일본·아이누가 유사하다는 것과, 특히 신을 지칭하는 기본 용어가 서로 일치한다¹⁷⁾는 점은, 양 종족이 장기간, 공유하고 있던 문화가 繩文文化的 유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原아이누期；아이누문화의 근저에 繩文文化的 유산이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6, 7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북해도 북반부, 사할린 남부, 千島列島에 있었던 오호츠크문

화의 영향과 오호츠크문화를 매개로 한 고대 동북아시아 풍속의 전파가 있었던 시기를 유념하여야 한다. 이는 근대 아이누문화 속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의 검증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 시기는 아이누문화의 제 1변혁기라고 일컬어도 좋을 만큼 주목되는 시기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까지도 아이누인들에게 정신문화의 핵을 이루는 이요만테[熊送り]의식이다.

(3) 아이누期；일본 本土人(和人)이 아이누의 주거지역인 渡島半島 沿岸에 살기 시작한 것은 14, 5세기경이고, 북해도 전역을 왕래했던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즈음 아이누인들은 수렵, 어로를 주 생존수단으로 하며, 그 획득물을 일본의 상품과 교환하고, 또 이미 해외교역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아이누 사회에 교역에 의한 상품 경제를 배경으로 경제적 축적 및 집단의 조직화를 형성한다. 또한 渡島南部에 경제활동의 거점을 구축한 화인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자신들에 대한 和人의 수탈을 저지하고 자립적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저항투쟁을 하게 된다.¹⁸⁾ 스스로를 아이누라 부르고, 자신들의 주거지를 아이누모지리라 칭하였으며, 아이누인 스스로에게는 민족적 의식이 팽창된다. 이로써 이 시기를 前期의 原아이누기에 이어 아이누기라고 하며, 아이누문화의 본질적인 특징은, 原아이누期와 아이누期를 거치는 2단계의 변혁기를 경험하는 중에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누인은 繩文人을 조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오늘날 아이누민족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이나 민족의 문화적 특색이 명확하게 된 것은 15세기 이후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繩文文化가 있고, 이어서 오호츠크문화를 매개로 한 동북아시아의 영향이 있어, 이들이 아이누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아이누문화와의 관련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일본인과의 교류 중에 더

육 구체화된 아이누문화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2. 아이누文化의 特徵

아이누문화는 아이누人들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신앙관과 의례를 포함하여, 이들 문화에 내재한 북방적 요소와 남방적 요소들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의 연해주, 아무르지역 등은 아이누문화의 북방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¹⁹⁾

1) 아이누문화의 북방적 요소

(1) 전승의례 이요만테

아이누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다양하나 아이누문화의 핵을 이루고 그것을 축제화한 쿠마오쿠리[クマオクリ; 熊送り], 아이누어로 카무이 이요만테 혹은 오만테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누인들에게는 가장 성대한 축제로서 12월에 열리고 날은 정확하지 않다.

이요만테란 꿈의 혼(イ : 이)을 신의 나라로 보낸다(ヨマンテ : 요만테)는 뜻으로 즉, 꿈을 카무이(カムイ : 신)로 믿고 그 혼을 자유롭게 육체로부터 신의 나라로 되돌려 보낸 다음 다시 이 세상에 맞아들인다는 관념의 의식이다. 즉 저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꿈의 혼을 맞이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의식이므로 성대한 의식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한 신앙인 것이다. 신에게 축사를 올리고 우리로부터 꺼낸 꿈과 이별을 슬퍼한 뒤에 화살을 쏘고 나무에 매달다. 제단 앞의 불을 지피고 술을 올리며 꿈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른다. 그 후, 꿈은 신이 내린 선물로서 참가자들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 이요만테 의식은 西시베리아나 사할린 북부의 니브흐, 흑룡강 유역의 제 민족들에게서도 목격된다.

(2) 성년식

아이누의 남자는 최초 수렵을 행하거나, 혹은 본격적인 수렵에 참가하는 것에 성년식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아시아에 있어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극히 수렵민적인 의식이다.

(3) 실내공간 이용

아이누인은 대체로 입구 가까운 쪽을 여성, 입구에서 안쪽 깊은 곳을 남성의 자리로 하고 있다. 이는 북방 유라시아의 실내 공간 이용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수렵민족적인 공간이용의 방법이다.²⁰⁾

또 아이누의 겨울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 요소인 모카신형 신발이나 아이누 생산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하천에서의 어로 활동, 수렵에 쓰는 아이누의 화살 등도 아무르 지방의 습속과 공통한다는 보고가 있다.²¹⁾

(4) 영웅 서사시 유카라

아이누인에게는 일종의 장편 英雄敍事詩인 유카라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웅서사시는 기마·유목민족의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중앙아시아의 알타이민족에서 극단적인 발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영웅서사시는 초원지대의 유목민의 생활을 넘어 아무르지방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나나이, 그밖에 아무르의 퉁구스 諸族의 영웅서사의 존재 등에서 알 수 있다.

2) 아이누문화에 내재한 本州 일본적인 요소

사이몬이라고 하는 神劍은 북해도 아이누에게서 적어도 幕府 末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古事記>나 <日本書紀>에도 등장하며 <隋書> 倭人傳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고대 일본의 神劍은 율령제 이후 모습을 감추고 있으나 북해도의 아이누인들에게는 적어도 幕末까지 존재하고 있었다.²²⁾ 또한 8세기 이전 시기의 신에 대한 의례

는 일본·아이누가 유사하다는 것과, 특히 신을 지칭하는 기본 용어가 서로 일치한다²³⁾는 점은, 고대 本州와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아이누 문화의 일면을 시사한다.

또 아이누문화에 있는 남방적 요소로는 農耕, 機織, 額帶運搬, 文身 등이 있다. 요컨대 아이누인들에게 일반화했던 문신은 고대 일본의 문화와 함께 하는 것이며 아이누문화에 보여지는 뚜렷한 남방적 요소라는 점이 흥미롭다.(도 2)



<도 2> 맥대 운반
(출처: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

Ⅲ. 아이누인의 의복

아이누의 풍속화나 문헌기록, 유물 등에 의해 아이누 의복의 역사적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8세기초부터이다.

1. 의복구성 上の 특징

아이누인의 의복은 앞길, 뒷길, 깃, 소매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은 직선재단에 의해 평면구성 된 원피스 스타일의 前開型 의복이다. 和服의 기모노에서 보이는 衿, 겨드랑이 밑의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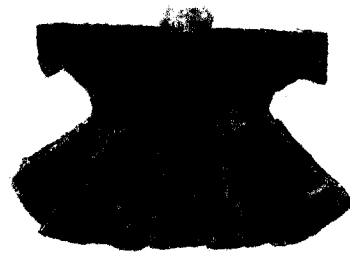
임, 소매의 후리(振り) : 여자의 옷소매에서, 겨드랑 밑에서부터 배래에 걸쳐 꿰매지 않은 부분)은 아이누의 의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 소매 : 筒袖, 모지리 소매, 廣袖

아이누 의복의 소매형은 筒袖와 모지리소매(卷袖), 廣袖로 구분된다.

통수는 진동이 25cm 내외로서, 수구를 향하여 조금 좁혀진 형상의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아이누인의 오래된 의복인 非織物衣(獸皮衣, 魚皮衣)나 앓토우시 등에 많다.

모지리소매일 경우 진동은 대체로 45cm±3cm, 수구는 18±2cm 내외이며, 드물게 수구가 14cm±1cm 것도 있다. 구성은 그림과 같이(도 3) 한 장의 직사각형 옷감을 먼저 수구만큼 접어 넘기고(a) 남은 부분(b)을 수구에서 대각선으로 접어 올려(c) a와 c를 맞붙여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모지리(もじり) 혹은 무지리(ムジリ) 라는 것은 동북지방에서는 접어 구부리다의 뜻이 있다. 모지리소매는 한자로 卷袖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구성에는 옷감의 폭이 완전히 이용되거나, 여러 배의 조각을 이어 위와 같은 형태로 만든 예도 보이는데, 이는 소량의 옷감으로 활동에 편리한 소매를 구성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구성 방법으로 보인다.



<도 3> 수피의
(출처: 釧路市立博物館)

廣袖는 진동, 수구가 일직선으로 40~50cm 정

도이다. 사각형의 넓은 소매인 廣袖는 아이누의 복에는 비교적 후대의 것에서 보이는데, 아이누 사람들조차도 이를 和人의 소매라고 하였음을 보면, 이는 和人과의 접촉 이후 생겨난 소매구성방법으로 생각된다.

박물관에 보관된 아이누 의복이나 아이누 복식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통수에 비해 모지리소매가 현저하게 많고, 廣袖는 아주 드물다.

2) 띠

노동복, 일상복인 모우루(モウル)는 예외적으로 貫頭衣형 의복인데, 띠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아이누인의 기본의복인 앓도우시를 비롯한 전개형 의복들도 실내에서는 띠를 매지 않으나, 옥외에서는 남녀 모두 간단한 자수를 한 폭 10cm 정도의 끈을 허리에 감고 뒤에서 매거나, 꼬은 끈 형식의 띠를 맨다. 띠의 끝에는 방울 모양의 장식을 달거나 때로는 옥을 장식하기도 했는데, 끈의 형식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 이는 후세 木綿衣에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 위에 만타리(マンタリ라고 하는 앞치마를 입음으로써, 속옷이 보이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위에 덧입는 의식용의 옷에는 띠를 매는 일이 없었으며, 이러한 풍습은 현재에도 지켜져, 의식 때에 입는 카파라미프, 루운페 등에는 띠를 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아이누인들은 집 밖에서 일할 경우나 때로는 담배갑 등을 매달아 내려뜨리기 위한 필요에서만 띠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깃과 여밈

아이누인의 의복은 좌우 앞길과 뒷길을 한 폭의 옷감으로 연결하여 마름질하고 앞길은 중심을 갈라 좌우 앞길을 이루고 있어 섰과 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깃이 좌우 對襟形으

로써 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비교적 시대가 내려오는 북해도 아이누의 의복 중에는 기모노와 같이 깃이 밖으로 내달린 의복이 있는 것을 보면 구성상에도 부분적으로 화복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달린 깃은 길과 다른 옷감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회화에 나타난 아이누인의 모습을 보면, 띠를 맬 때는 좌임과 우임을 혼용하고 있는 예가 많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우임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이를 시대적으로 一瞥하면 아이누의 여밈 방향은 원래는 좌임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의복의 종류

아이누의 의복은 自製品인 것과 교역에 의하여 아이누인들이 착용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 기본의복과 의례복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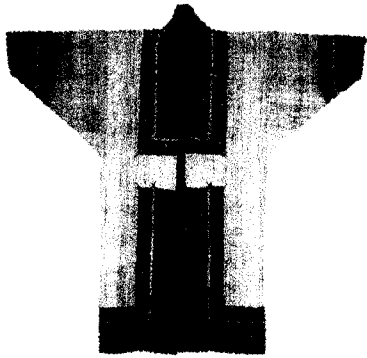
의복 재료에 따라 非織物衣인 獸皮衣와 魚皮衣가 있고, 織物衣로 분류되는 樹皮衣와 木綿衣가 있으며 이것은 아이누인의 특유의 자제품이며, 아이누 고유의 전통적인 의복이다.

(1) 非織物衣

자연에서 얻은 동물의 皮膚이나 羽毛를 이용하여 의복을 만들었던 것으로, 원시적이며 지역적인 산물에 의한 의복이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비직물의 극히 적으나, 아이누인들은 이를 재료로 하여 의복을 짓는 기술이 대단히 우수했었다.

獸皮衣는 주로 곰, 사슴, 여우, 담비, 해표, 해달 따위의 산과 바다짐승의 모피를 봉제하여 만들었는데, 부분적으로 개가죽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짐승의 가죽을 좌우 대칭

으로 균형 잡아 배치함에 의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거나, 또 동일한 獸皮에도 부분에 따라 패색채가 다르므로 역으로 이것을 잘라 맞추어 아름다운 濶縫분양을 만들어 낸 예도 있다.(도 4)



<도 4> 아토투시
(출처: 아이노 紋様)

魚皮衣에는 주로 연어의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한 벌의 긴 상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어의 가죽은 약 50마리 분 정도였다. 머리와 꼬리와 등의 지느러미부분을 제거하여 배를 갈라 벗긴 연어의 가죽을 거의 삼각형으로 건조시키고, 등의 지느러미 부분은 다른 연어의 가죽으로 보충하여 막는다. 연결할 때나 작은 조각으로 매운 곳은 그 주변을 색실로 사며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어피를 부드럽게 가공하는 것이나 봉제기술 등은 북해도 아이누들보다 사할린 아이누들에 더욱 발전했었다고 하며, 더욱이 흑룡강 하류의 워르치 등의 諸民族은 고도의 魚皮文化를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아이누인들의 魚皮衣는 중국제 錦이나 견제품과 함께 중요한 교역의 대상물이 되었다.

鳥羽衣는 鴨(오리), 鵞(검둥새, 두건어 사다새), 鷺(독수리) 등의 羽皮로서 만들었다. 약 60마리 전후를 가지고 한 벌의 긴 원피스형 옷을 만들어 냈는데, 북해도 농학부 부속 식물원에 있

는 박물관에 鳥羽衣가 한벌 소장되어 있다. 이의 소재는 흰수염 바다오리로 보이는데, 새털을 붙인 鳥皮를 요철형으로 재단하여 봉제하고, 海鳥 특유의 백과 흑의 羽毛를 잘 배열하여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수구, 단 등의 태두리에는 1.質의 해달의 모피를 붙이고 있다. 특히 가슴의 안쪽과 등에 足皮와 圓環狀의 肛門의 皮가 붙어있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것은 아마도 액막이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織物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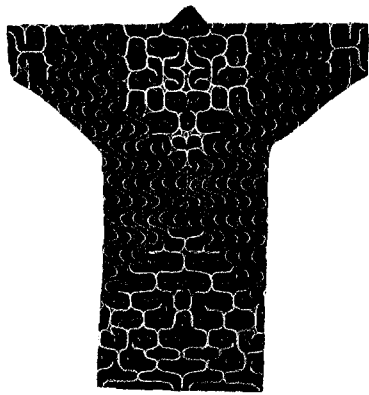
아토투시(옷은 아츠시) 이의는 대부분이 면직물이며, 바탕지의 일부에 모직물, 견직물이 사용되고 있다.

① 樹皮衣

오호우(オホウ), 하레니레(ハルニレ)나 시나(シナ) 등의 나무의 내피를 물에 침지하여 얇게 벗긴 후, 가늘게 찢어 실을 만들고 이것으로 짠 옷감을 재료로 한 아토투시와, 에조이라쿠사(エゾイラクサ)와 츠루우메모도키(ツルウメモドキ)로부터 섬유를 취하여 실을 만들고 이로써 짠 옷감을 재료로 한 레타라페(レタラペ: 흰색)가 있다.

아토투시는 아이누인의 대표적인 옷인데, 紺 등의 색사로 세로줄무늬를 넣은 것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테이프 상의 조각 천을 덧씩워 문양을 내거나, 혹은 色絲의 자수로 깃, 수구, 등, 단둘레 등을 대칭적인 施繡한 것도 있다. (도 5)

레타라페는 사할린 아이누의 대표적인 의복이었다. 이것은 아토투시와 비교하면 희고 촉감이 부드러우나, 물이나 습기에 약하다. 문양은 주로 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장식되어 있다. 문양의 모티브는 아이우시나 모레우文을 기초로 하면서도, 특히 문양의 말단 처리가 꽃잎 모양인 것이 많은 등, 북해도 아이누와는 구성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도 5> 치카라카루페
(출처: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

아이누인들은 이들 문양에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특히 악령의 침입을 막고 병마에 붙잡히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② 木綿衣

앗토우시 못지 않게 귀중한 것은 木綿衣이다. 18세기에 들어서면 本州에는 목면생산이 성행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보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手織의 목면이나 그 현옷이 아이누와의 교역품으로서 적지 않게 북해도의 아이누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아이누인의 일상의복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들 낡은 목면 옷을 잘게 찢어, 앓토우시 위에 문양을 이루는 장식 천으로 사용되었던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이는 곧 아이누인들의 의복에 표현된 독특한 아플리케수법의 장식문양 발달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아이누의 木綿衣는, 明治 초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

2) 의례복

아이누인들의 의례복으로서 목면의에 다양한 문양을 施繡한 아이누인 전통의 文樣衣와 문화접촉에 의해 도입된 의복들로 분류할 수 있다.

(1) 文樣衣

紋樣衣는 전개형의 아이누인 기본의복인 木綿衣에 면, 견, 모, 또는 두꺼운 옷감, 얇은 옷감 등을 자유자재로 혼합하여 문양을 나타냄으로써, 의복에 입체감, 원근감, 부드러움, 딱딱함, 화려함, 고상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문양 및 색채, 문양을 넣는 방법에는 남녀의 性差가 없고, 대체로 어두운 바탕 천에 白 또는 赤색의 천을 사용하여 밝은 색조의 호화스런 의복을 만들어내고 있다.

文樣衣는 문양을 넣는 방법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치카라카루페 [チカカカッペ 혹은 치카루카루페[チカルカルへ] : 黒裂片置文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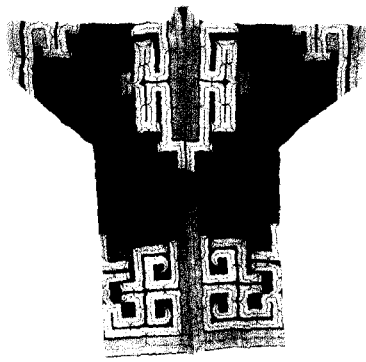
바탕의 옷감은 本州로부터 입수한 和服地の 줄무늬, 格子 혹은 무늬 있는 면포를 이용한다. 그 위에 주로 4~6cm 정도로 직선 재단한 테이프 상의 검정 혹은 紺色の 조각 천을 주체로 기타 색을 배합하여 깃, 수구, 어깨, 등, 단 등에 배치하여 대담하고 화려하게 아플리케를 한 아름다운 의복으로서, 의식이나 성장용으로 많이 착용하였다.

문양의 모티프는 아이우시나 모래우문, 혹은 이를 변형한 여러 형상의 문양으로 아플리케 하고 그 위에 또 자수를 곁들이기도 한다. (도 6)

② 루운페[ルウンペ : 色裂片置文衣]

다양한 색의 목면이나 견 등을 테이프 상으로 잘라, 이것을 紺 혹은 黑色 등의 짙은 무지 목면 혹은, 잘잘한 무늬가 있는 바탕 천 위에 놓고, 이들을 자유자재로 구부리고 뺨어가면서 문양을 만들어 아플리케를 한 다음, 그 위에 목면사 등으로 자수를 한다.

테이프상의 조각 천들은 白, 赤, 靑, 茶, 綠色 등 다양하고, 이들 색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면



<도 6> 루운패
(출처: 아이즈 紋様)

서 기교 있게 배색되어 있기 때문에 色裂片置文衣라고도 한다. 이 중에는 江戸時代の 小袖로 생각되는 금사 자수가 놓인 和服地の 조각도 있어, 이들 자수 부분은 등 부분의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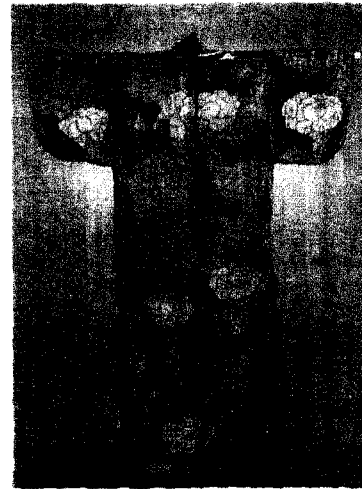


<도 7> 카파라미프
(출처: 아이즈 紋様)

③ 카파라미프[カハラミフ] : 白布切抜文衣
혹은 布置衣)

넓은 백색의 복면 천을 여러 겹으로 겹쳐 집어 문양을 잘라낸 다음, 문양이 잘려나간 상태의 백색 복면 천을 바탕 천(옷) 위에 놓고, 잘려나간 문양의 가장자리를 집어 감침으로써, 바탕 천

이 문양으로 내 보이도록 장식된 옷이다. 이러한 수법은 현대적으로 가장 새로운 기법으로서, 시작한 대강 明治(1868-1912) 年間으로 보인다. 차츰 문양이 옷 전체를 덮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기법이 특히 성행했던 것은 광복의 白木綿이 입수가 가능했던 大正(1912-1926) 초기에 이르러서이다. (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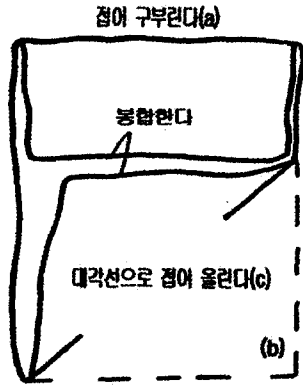


<도 8> 치지리
(출처: 아이즈 紋様)

④ 치지리[チヂリ] : (無切伏刺繡文衣)

紺 혹은 黑色 등 짙은 색의 木綿衣에 자수만으로 직접 연속적인 문양을 구성하는 장식수법을 이용한 文様衣이다. 자수의 기법은 조금씩 변하여 폭넓은 체인 스티치를 하거나, 한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도 자수한다. (도 9)

북해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의복으로 같은 형상의 것이 사할린에서도 사용되었으나 명칭은 불명하다. 아플리케수법을 가한 다른 의복보다 일단 격이 낮은 의복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木綿地에 직접 자수를 할 刺繡衣의 본격적인 전개는 빨라도 明治시대에 들어서부터 일 것으로 생각된다.



<도 9> 소매
(출처: 아이누民族の衣生活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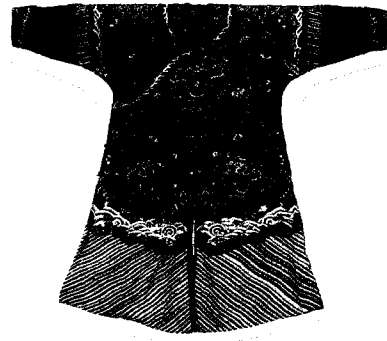
(2) 문화접촉에 의해 도입된 外來衣
이에는 대륙으로부터의 도입에 의한 것과 本州로부터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山丹錦衣(山丹服)

山丹이라는 것은 근세의 일본에 있어서 濠洲 강 下流域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이 지방에 거주하는 민족을 山丹人이라고 불렀다.²⁵⁾ 이들 산단인에 의한 교역을 일본에서는 산단교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중에 아이누인들에 전해진 대표적인 의복이 山丹服 혹은 山丹錦衣²⁶⁾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絹地 위에 金銀糸와 色絲로 龍이나 花鳥 등을 모티브로 하여 주위에 구름문 등을 배열하고, 또 옷단에 산, 파도 등의 문양을 정교한 자수로 시공했던 화려한 비단 옷이다.(도 10)

아이누는 山丹錦衣의 착용을 지위의 상징으로 했으며, 그 조각에조차 특별한 靈力을 부과하여, 작은 조각을 남자가 의례시에 쓰는 禮冠에 장식하여 붙이거나, 병마에 시달릴 때에는 실을 아주 조금 풀어 마셔 악령을 퇴치시키는 일도 행해졌다고 한다.²⁷⁾

외국무역이 나가사키에 한정되었던 쇠국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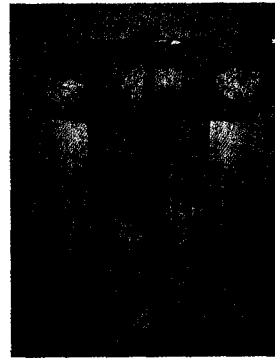


<도 10> 산단복
(출처: 아이누의衣服文化)

속에서, 和人 상인들은 아이누의 손을 거친 대륙산인 山丹錦을 흡사 아이누 세계에서 생산되었던 것처럼 蝦夷錦이라 부르며 본주로 운반·고가로 거래했다.²⁸⁾

(2) 샤란페(혹은 코손테)

샤란페 혹은 코손테란, 본주 상류계급의 부인들이 입었던 小袖나 우치카케 類인 부드러운 絹布의 의복이 교역이나 官으로부터의 사여로 아이누인들에게 입수되어 수구, 깃 등에 아이누 특유의 아플리케나 자수가 가해진 것이다. 앓토우시와 목면의에 비교하면 훨씬 아름다워 추장의 의식용 의복으로 重要視되기도 하였다. (도 11)



<도 11> 샤란페
(출처: 兒玉資料目録)

江戸時代 후기에는 遊女の 우치카케, 무관 부인들의 낚은 의복이 그들이 원하는 모피 등과 교역됨을 계기로 아이누사람들에 다량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3) 陣羽織(진바오리)

주로 文化年間(1804-1817)以後에 본주로부터의 교역 또는 幕府 役人에 대한 포상 혹은 아이누의 조공 의례를 통하여 陣羽織가 상당수 아이누에게 주어져 남자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²⁹⁾

앗토우시 위에 입어, 남자는 의식 때에 威儀를 엄숙하게 했다. 현재에도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아름다운 朱色の 陣羽織을 입어 어깨에 큰칼을 차고 冠을 쓰고 위엄을 갖춘 추장의 정장을 볼 수 있다. (도 12)



<도 12> 진바오리
(출처: 近世アイヌの風俗)

3 아이누의 의복 문양

1) 문양의 기본 단위

아이누의 의복 문양은 오묘한 곡선들의 조합으로 각기 다른 연속된 문양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것도 같은 것이 없다. 그 연속 문양을 분해해 보면, 아이누어로 [가시가 있는 문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이우시(アイウシ)문과, [부드럽게 굽혀있는 것]이라는 뜻의 모레우(モレウ)문의 두 가지 단위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아이우시文

수확에서 사용하는 괄호에 비슷하기 때문에 括弧文이라고도 불린다. 아이우시文은 대개는 연속하여 나란히 있으나, 전후좌우로 연결한 網狀이나 대칭, 혹은 그 중심에 선을 두는 등으로 변화시킨 문양도 있다. 연속된 아이우시文은 옷의 깃, 소매, 옷단에 장식되어 있는 예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 부분이 가장 病魔가 숨어 들어오기 쉬운 곳이므로, 거기에 가시가 있는 그물 형상의 문양을 배치함으로써 신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護符의 역할로서 施繡 혹은 裝飾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 모레우文

부드러운 渦卷狀의 문양으로 일본의 巴紋과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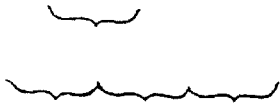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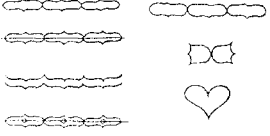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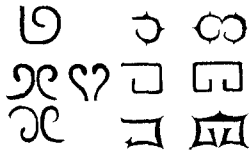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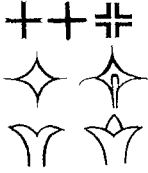
아이누인은 자신의 눈이 닿지 않는 등 부분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위로 여겼음인지, 모레우文을 특히 의복의 등 부위에 장식하는 예가 많다. 이는 渦卷狀의 모레우文을 신의 눈으로 생각하여, 접근하려는 악마를 매섭게 쏘아 물리침으로써 신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아이누의 신앙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속적인 문양 속에서 渦卷文이 주는 느낌은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강렬하다. 이는 등 부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이누인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처럼도 보인다. 연대가 오랜 앓토우시에는 거의 아이우시文만이 이용되고 있어 모레우文은 아이우시文보다 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최근의 것일수록 일반적으로 모레우문이 넓게 많이 사용되고 있음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이누인들은 이 문양들을 기본으로 하여 다

시 변형과 조합에 의한 다양한 문양을 창출함으로써, 자신들의 농질성을 특유의 문양에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의 눈을 상징함으로써 등이나 가슴 부분에서 감시의 눈을 번쩍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문양은 곧 착용자를 지켜주고 액을 막아내는 일

<표 2> 아이누문양의 기본단위

<p>a. 아이우시(アイウシ)文 아이누語로 가시가 있는 형태라는 뜻 수학에서 사용하는 괄호와 비슷하기 때문에 括弧文이라고도 한다.</p>	<p>b. 모레우(モレウ)文 아이누語로 부드럽게 굽혀있는 것이라는 뜻 소용돌이文 혹은 渦卷文이라고도 한다.</p>
	
<p>c. 아이우시(アイウシ)文의 변화</p> 	<p>d. 모레우(モレウ)文의 변화</p> 
<p>e. 아이우시(アイウシ)文과 모레우(モレウ)文의 혼합文</p> 	<p>f. 기타</p> 

2) 문양의 위치와 의미

의복에 施繡된 문양에는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것으로부터 옷단, 수구에 장식되어 있는 網川문양(아이우시문과 그 변형)은, 휘감겨 얽혀있어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것을 염원한다. 소용돌이 모양의 渦卷문양(모레우문과 그 변형)은 신

종의 정신적인 증표이었던 것 같다.

이들 문양의 기본 단위인 아이우시와 모레우문을 조합하고 변형시키면서 만들어낸 아이누의 민족문양은 힘이 있고 씩씩하다. 여기에는 북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깊은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 아이누인들은 문양 및 색채구성의 요소로 자수나 여러 가지 천을 교묘하게 조합하였고 부족한 천을 別布로 보충할 때에는 의복의 전면 혹은

유의 기본의복 형태는 일차적으로 기후와 생존 수단에 의해 결정되며 그렇게 결정되어 오랜 동안 입어온 민족 고유의 기본의복 형태는 異民族에 의한 점령 등의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고유형태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복을 통해서도 아이누인은 원래 한냉지의 북방민족에 속하지는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2) 아이누 의복의 세부 구성면에서 보이는 광수의 소매, 돌출 깃의 출현, 우임으로의 전환 등은 18세기 이후 和服의 영향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3) 아이누인들은 의복재료로 獸皮, 魚皮, 鳥皮 등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다분히 원시형태의 의복 재료이며 지역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점차 이들 재료는 교역품목으로 전환하고, 대신에 苧의 섬유인 아토우시가 대표적인 아이누의 의복으로 되었다. 江戸후기(18세기 후반) 즈음부터 본토와의 교역으로 낡은 목면의가 아이누인들에 입수되면서 이를 가늘게 쪼개 아토우시 위에 아이우시문이나 모레우문의 아플리케 장식을 하게 되어 아이누의 장식문양은 더욱 기교적으로 발달한다. 특히 木綿衣 위에 아이누의 독특한 문양들이 장식된 아름다운 의복들은 치카루카루페 [チカルカルベ; 黒裂片置文衣], 루운페 [ルウンペ; 色裂片置文衣], 카파라밋프 [カバラミツプ: 白布切抜文衣 혹은 布置衣], 치지리 [チチリ; 無切伏刺繡文衣] 등으로 불리며, 이들은 교역이나 문화 접촉에 의해 도입된 山丹錦衣, 샤란페, 陣羽織(진바오리)과 함께 의례복으로 착용하게 된다.

4) 아이누의 복식문양은 아이우시문과 모레우문으로 대별된다. 아이누인들은 이들을 변형·조합하여 등, 어깨, 깃, 수구, 허리, 단에 장식하였다. 이는 요물이나 악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아이누인의 전통적인 문양 형성은 아무리 소급하여도 17세기 이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문양 중에서도 모레우文은 아이우시文보다 후대의 것이다. 특

히 아플리케수법의 문양장식은 本州로부터의 낡은 木綿衣의 유입이 가능했던 18후반 이후의 수법이다.

5) 아이누의 문양에 유사한 문양이나 기법은 흑룡강 유역, 사할린 지방은 물론, 멀리 몽골까지도 그 연관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和服에는 유사한 문양이나 아플리케의 기법이 없다. 또 本州에서는 길이의 천에 横이나 사선의 천을 자유로 사용하는 것은 기피한다는 것도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아이누의 전통 문양이라는 것은 북방과의 교류 속에서, 아이누인들 자신의 감각을 더해 교묘하게 빚어낸, 아이누 특유의 대륙적인 구상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이누문화의 많은 부분에는 북방적인 요소가 있으나, 아이누인들의 의생활의 근저에는 전혀 북방적요소로 보기 어려운 원피스 스타일의 前開型 의복이 있으며 아이누인들은 오랜 동안 이들을 자신들의 의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양상으로 지적된다. 이는 형질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누의 원류에 대해, “아이누는 한냉지 적응을 하지 않은 고몽골로이드 즉 원일본인”이라는 埴原 和郎의 주장과, 본인의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바, 아이누는 북방의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繩文人 - 원일본인이라는 주장이 복식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장신구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아이누 복식이 기본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海保嶺夫(1997), 「エゾの歴史」, (東京: 講談社), p.8.
- 2) 姜淳弟(2000. 12), “北海道地域の 文化的 特性과 아이누人 - 아이누의 淵源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20(1), pp.43~63.
- 3) 梅原 孟, 埴原和郎(1998), 「アイヌは原日本人か」, (東京: 小學館), pp.129~139.
- 4) 計良智子씨는 순수한 아이누의 혈통을 잇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재 ヤイユーカーラの森의 運営委員이며,

札幌市 南區 常盤4條2丁目19-32에서 아이누의 전통 문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5) アイヌ文化の成立(平成 11年), p.11.
- 6) 海保嶺夫(1997), 「エゾの歴史 -北の人びと日本-」, (東京: 講談社), p.76.
- 7) 「アイヌ文化の成立」, 北海道開拓記念館, 1999, p.3.
- 8) 石井慎二 編(1995), 「アイヌの本」, (東京: 宝島社), p.11
 "오호츠크문화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網走의 모요로 貝塚이다. 모요로패총으로부터 人骨이 많이 발견되었다. 모요로貝塚人들의 두개골은 아이누人들의 두개골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누人들과 다른 오호츠크문화인들, 그것은 이미 北海道에 아이누人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9) 石田 肇, 「形質人類學から見たオホーツク文化の人びと」, 古代文化, 48(5), 古代史學會, 1996, pp.65- 66.
- 10) 「アイヌ文化の成立」, p.10. "북해도에서의 오호츠크 문화는 10세기에 오호츠크해안까지 분포권을 넓힌 靺鞨문화에 의해 약화·흡수되고 薩摩에서는 12세기까지 계속되었다".
- 11) 「アイヌ文化の成立」, 1999, p.24.
- 12) 姜淳弟(2000. 12), p.53.
- 13) 「アイヌの本」, 寶島社, 1995, p.112.
- 14) 姜淳弟(2000. 12), pp.53~58.
- 15) 姜淳弟(2000. 12), pp.47-48.
- 16) 梅原 猛, 植原和郎(1998), pp.127~140.
- 17) 梅原 孟, 植原和郎(1998), p.126.
- 18) 1456(康正2)년부터 1525(大永5)년 까지의 약 70년간 '蝦夷蜂起는 멈추지 않음'이라는 기록이 있고, 1457(長祿1)년 코사마인전쟁, 1669(關文9)년의 사쿠샤인전쟁, 1789(寛政1) 쿠나시리·메나시지방의 아이누蜂起 등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 19) 大林太良(1993), 「北方の民族と文化」, (東京: 山川出版社), p.229.
- 20) 유목민은 입구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나뉘며, 좌측은 남, 우측은 여라고 하는 식이다.
- 21) 大林太良(1993), pp.234~234.
- 22) 大林太良(1993), p.241.
- 23) 梅原 孟, 植原和郎(1998), p.126.
- 24) 大塚和義(1995), 「アイヌ海浜と水辺の民」, (東京: 新宿書房), p.206.
- 25) 「山丹交易と蝦夷錦」, 北海道開拓記念館・開拓の村文化振興會, 1996, p.10.
- 26) 山丹服이라 함은 山丹地方이라고 불리고 있던 靺鞨 강 하류지역의 先住 諸民族과의 교역, 清朝에의 조공 등에 의해서 아이누人에 입수된 의복이라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나, 본래는 청나라 관리의 관복인 것이다.
- 27) 大塚和義(1995), p.216.
- 28) 大塚和義(1995), p.216.
- 29) 佐佐木 高 名(1998), "アイヌ文化と沖繩文化 -日本文化との比較の視座から-", 沖繩民俗研究 第 18号, p.8.